

농수축산물 최대 생산지 전남 가공·유통 비중 크게 늘려야

생산물 대부분 부가가치 낮은 원물 거래 ... 역외 유출 심각
관련 대기업 적극 유치·우량 지역 중소기업 육성 서둘러야

농수축산물의 국내 최대 생산지인 전남도가 지역 생산물의 지역 내 가공·유통 비중을 크게 늘리는데 도정을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생산물 대부분이 부가가치가 낮은 원물 상태로 거래되거나 가공·유통 관련 기업, 시스템을 갖추지 못해 자본만이 아니라 생산물의 역외 유출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단순 생산지에서 벗어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공·유통 거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관련 대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우량 지역 중소기업을 대기업으로 육성하는 시스템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관련기사 3면〉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현재 전남도에 매출 100억원 이상 농식품업체는 30곳, 수산물가공업체는 19곳이다. 1000억원으로 범위를 좁히면 보해양조(주), 남양유업(주) 나주공장 등 2곳, 500억원 이상은 (주)사조화인코리아 나주공장, 동원에프앤비 강진공장 등 8곳에 불과

하다. 여기에 100억원 이상 농수축산 관련 업체의 상당수가 대기업 공장이거나 대기업의 하청업체로, 자체 브랜드를 갖고 있는 지역 대기업은 전무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진단이다. 지역 내 농수축산물 가공업체 대부분이 영세업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가공·유통 시스템이 구축되지 못하면서 지역 내 농수축산물은 부가가치가 낮은 원물 상태로 전남 밖으로 유출돼 가공·유통·수출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전체의 자연 조건을 갖춘 농수축산물의 생산 거점 이면서도 일자리 창출, 농어민 소득 향상, 지역 발전 등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남도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 생산량은 지난 2017년 현재 319만2260t으로 전국대비 생산량이 20.5%, 생산액은 7조3909억원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소득액은 생산액의 절반 수준인 3조59903억원(52.7%)에 불과하다. 생산이 소득으로 이

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수산물 생산량 점유율은 농산물보다 더 압도적이다. 어류를 제외한 전복 등 패류, 미역·감·다시마 등 해조류는 전국 대비 생산량이 90%를 넘어섰으며, 낙지·잡조기·뽕장어 등도 2018년 현재 57~7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수산물의 지역 내 가공점유율은 2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6년 21%에서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다. 축산물 역시 한우 17%, 돼지 10%, 닭 12%, 오리 53% 등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나 관련 지역 내 가공 제품 생산은 저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기업이 극소수이기 때문이다.

김현철 광주전남연구원 농수산해양연구실장은 "전남 농수축산물이 충남, 경남 등 역외로 유출돼 가공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이 같은 추세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이 문제"며 "영세한 지역업체가 농수축산물을 제 때 매입하지 못하고, 헐값으로 타 지역으로 넘어간 농수축산물이 가공돼 비싼 가격으로 팔리는 현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25일(현지시간) 프랑스 칸에서 열린 제72회 칸 영화제에서 영화 '기생충'으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받은 봉준호 감독이 포토콜에서 취재진에게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봉준호 '기생충' 칸 최고 황금종려상

한국영화 100년 역사상 최초
문대통령 "국민에 큰 선물"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25일(현지 시간) 프랑스 칸에서 열린 제72회 칸 영화제에서 한국영화 역사상 처음으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받았다.

〈관련기사 19면〉

황금종려상은 칸 영화제 경쟁 부문 가운데 최고 작품의 감독에게 주어지는 칸 영화제 최고상이다. 한국영화가 세계 3대 영화제(칸-베를린-베네치아영화제)에서 최고상을 받은 것은 2012년 김기덕 감독의 '피에타'가 베네치아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받은 이후 7년 만이다. 칸영화제 본상 수상은 2010년 이창동 감독의 '시' (각본상) 이후 9년 만이다.

영화 '기생충'은 이날 올해 칸 영화제에 초청된 쿠엔틴 타란티노의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 장 피에르-뤼크 다르덴의 '영 아메드', 페드로 알모도바르의 '페인 앤 글로리', 셀린 시아마의 '포트레이트 오브 레디 오 피아' 등 21개 작품 가운데 최고 작품상을 받았다.

봉 감독은 이날 "언제나 프랑스 영화를 보면서 영감을 받았다"며 "기생충"이라는 영화는 놀라운 모험이었다. 그 작업을 가능하게 해준 것은 저와 함께해준 아티스트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위대한 배우들이 없었다면 한 장면도 찍을 수 없었을 것이다. 배우들께 감사드립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봉 감독은 "이 자리에 함께 해 준 가장 위대한 배우이자 저의 동반자 송강호의 소감을 듣고 싶다"며 자리를 내렸다. 무대에 오른 송강호는 "인내심과 슬기로운, 열정을 가르쳐주신 존경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배우께 이 영광을 바치겠다"고 말했다.

수상작 '기생충'은 전원 백수인 기택(송강호 분)네 강남 기우(최우식 분)가 고액 과외 면접을 위해 박사장(이선균 분)네 집에 오면서 역이게 되는 사건을 모티브로 한 작품이다. 대립되는 두 가족의 이야기를 매개로 오늘날 심각한 문제인 빈부격차를 의미있게 그렸다.

'기생충' 황금종려상 선정은 심사위원 만장일치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쟁 부문 심사위원장인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나리투 감독은 '기생충'에 대해 "재미

있고 유머러스하며 따뜻한 영화"라고 평했다는 후문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제72회 칸 영화제에서 '기생충'이 황금종려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에 "한류 문화의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고 축하했다. 문 대통령은 SNS에 글을 올려 "매우 영예로운 일로, 우리 영화를 아끼는 국민들과 함께 수상을 마음껏 기뻐한다"며 "국민을 대표해 깊이 감사드리며 무엇보다 열두살 시절부터 끈 꿈을 차곡차곡 쌓아 세계적인 감독으로 우뚝 선 봉준호라는 이름이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박성진 기자 skypark@kwangju.co.kr

유기 구라모토 광주 콘서트 ▶7·16면

사랑과 감사의 65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9]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GWANGJU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D-46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광주시가 대대적인 도로표지 정비와 경관 조성 등에 나선다.

광주시는 대회기간 중 광주를 찾는 내·외국인들에게 대회시설 정보 제공 등 편의를 위해 주요 간선도로 및 경기장 주변 도로표지 정비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광주시는 다음달부터 사업비 8200만원을 투입해 대회 개막 1개월 전인 6월15일 완료할 예정이다. 정비는 경기장과 선수촌, 개회식장 등의 주변 도로 135곳의 표지에 임시적으로 한글과 영문을 병행표기해 수영대회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영 병행 표기 표지판은 마스터즈대회까지 치러지는 8월 말까지 유지한 뒤 원상대로 복구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또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광주시청, 야간 경관 새단장
도로 표지판 135곳
한글·영문 병행 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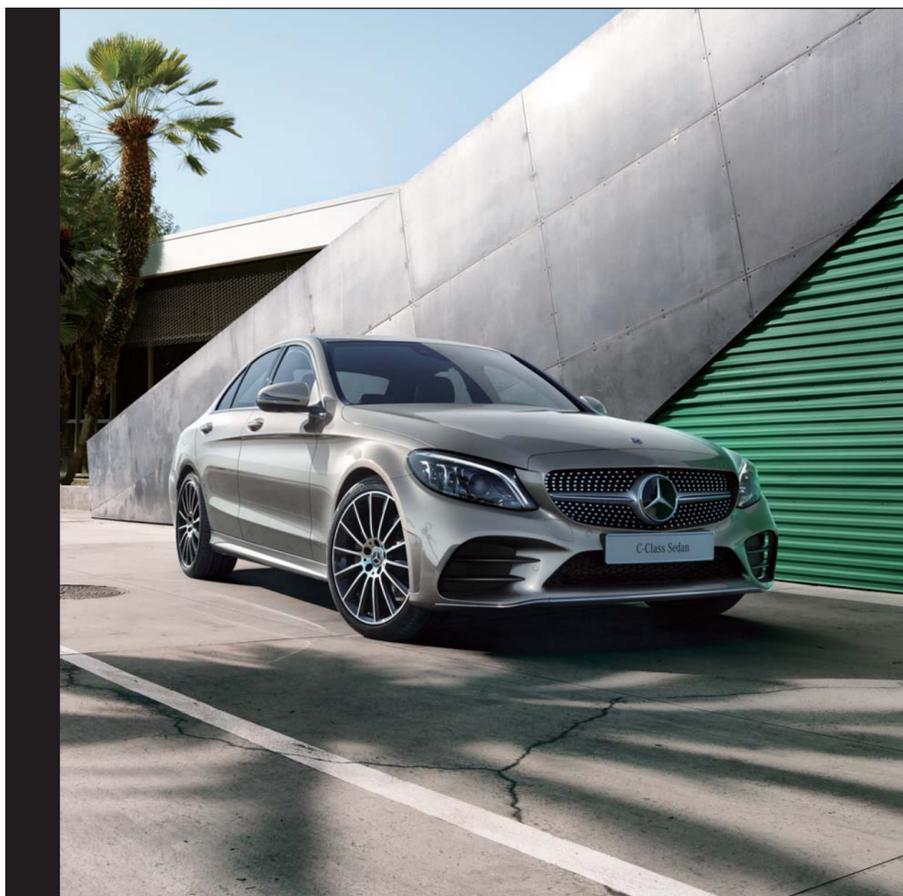
광주시는 청사 야간경관을 새단장했다. '평화의 물결'이라는 수영대회 슬로건에 맞춰 영산강의 흐름을 무지개색의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으로 표현했다.

성공 개최를 위해 청사 야간경관을 새롭게 단장했다. '평화의 물결'이라는 수영대회 슬로건에 맞춰 영산강의 흐름을 무지개색의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으로 표현했다. 경관 조명은 지난 15일부터 점등 중이며 오후 7시 4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

한다. 동절기 및 하절기의 일몰 시간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김성배 광주시 회계과장은 "청사 야간경관 운영으로 고품격 분위기를 연출하고 수영대회 성공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Never stop improving.
The New C-Class Sedan.

메르세데스-벤츠의 새로운 C-Class.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에서 직접 경험하세요!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MB 인증중고차 광주 전시장 (062) 945-0007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16(수완동)
소촌 서비스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여동대로 603번길 20(소촌동)
수완 서비스센터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20(수완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C 220 d (배기량: 1,995cc, 공차 중량: 1,650kg, 자동9단), 복합연비: 14.4km/ℓ(도시연비: 13.2km/ℓ, 고속도로연비: 16.3km/ℓ),
등급: 2등급, 복합CO₂배출량: 131g/km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상기 제품 이미지는 실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